

음주행태수준 및 신체·정신건강과 정신보건서비스에 관한 연구

— 서울시 공공의료기관 응급실 내원 주취자 대상으로 —

The study of drinking behaviors, health status and mental health service
- Heavy drinker who have visited emergency center of public hospital in Seoul -

이승연¹, 이상매¹, 박장호², 이명수¹

SY Lee MSW, SM Lee MSW, JH Park SW, MS Lee MD, MPH

초 록

- **연구목적** : 연구는 서울시 공공의료기관 응급실 내원 주취자를 대상으로 음주행태, 건강상태 및 정신보건 서비스 이용욕구에 관한 실태를 분석하여 효과적인 주취자 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 **연구방법** : 서울시 공공의료기관 응급실 내원 주취자 154명을 대상으로 2012년 5월부터 11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음주행태와 건강수준, 정신보건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이용욕구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 **연구결과** : 응급실 내원 주취자들 중 알코올사용장애는 69.2%로 나타났으며, 주취자 대부분은 집중적인 알코올서비스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위험 음주행태를 지닌 대상일수록 건강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보건서비스 기관에 대한 인식은 정신보건서비스 이용욕구, 학력 및 의료보장형태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결 론** : 응급실 내원 주취자 대부분은 알코올사용장애와 같은 고위험 음주 문제와 낮은 수준의 신체·정신적 건강상태를 보이고 있는 반면 정신보건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응급실 내원 주취자들의 정신보건서비스에 대한 인식개선과 함께 서비스 공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주요용어** : 주취자, 음주행태 위험수준, 정신보건서비스

Abstract

-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a preliminary data for developing effective management system of alcohol misuse people by analyzing drinking behaviors, health status and mental health service utilization of heavy drinker visiting emergency center of public hospitals.
- **Methods** : Questionnaires was done from the 154 heavy drinkers visiting emergency center of public hospitals in Seoul from May to November in 2012. We did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drinking behaviors, health status, mental health service perception and service utilization.
- **Results** : 69.2% of the participants could be categorized by alcohol use disorder. Most of the participants was needed to intensive intervention for alcohol misuse. Higher risk level of drinking has correlation with lower level of health status. Mental health service perception is positively related to service needs for mental health, education level and health care status.
- **Conclusion** : Even though most of heavy drinkers visiting emergency centers were alcohol use disorder group and had severe physical and/or mental health problems, their needs for mental health services was very low. Therefore, we should try to develop ER-based awareness increasing programs and proper interventions for alcohol misuse.
- **Keyword** : Heavy drinker, Drinking behaviors, Health status, Mental health service

1 _ 서울시정신보건센터

2 _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I. 서 론

한국 사회의 술에 대한 관대한 인식과 문화는 무절제한 음주 습관이 모든 연령층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데 일조하고 있다(정구영 외, 2010). 보건복지부(2011)의 국민건강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성인남자의 월간음주율이 77.8%로, 미국 59.2%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성인 남성 중 연간음주자의 월 1회 이상 폭음률이 65.5%, 고위험음주율이 24.9%로 나타나 한국사회에서 음주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 이르렀으며 국가적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문제라 할 수 있다.

음주 문제가 음주자들에게 주는 폐해는 단순한 신체 및 정신건강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추락사고, 화재, 폭력사고 등에 있어서도 음주는 중요한 위험요소로 알려져 왔으며(최윤희 외, 2006), Macdonald, et al(2005)의 연구에서는 미국의 지난 20년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의 40~50%가 음주와 관련이 있고, 음주로 인해 유발되는 분열적, 반사회적, 파괴적인 행동으로 인한 의도적 손상(살인, 자살)의 50~60%가 음주와 관련이 되어 있음에 대해서 보고하고 있다(정구영 외, 2010; 재인용). 특히나 질병관리본부(2010) 연구에 의하면, 응급실 내원 손상환자의 음주율은 17.8%이며, 그 중에서도 중폭음량 이상의 음주자 비율은 66.5%로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고위험음주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이렇듯 음주의 폐해로 인한 음주자들의 손상은 신체 및 정신건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음주자들의 손상은 일반적인 신체 및 정신건강에 비해 건강의 피해 규모가 크고, 노동력의 상실 등의 경제적인 손실에 이르기까지 폐해가 막대하다(최윤희 외, 2006).

이와 같이 음주에 대해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와 음주로 인한 건강에 대한 폐해는 경제적 손실 비용을 증가시켜 결과적으로는 사회 전반에 걸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기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음주 문제를 가진 주취자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연령을 구분한 타겟 집단 연구나 일반 대상층과 음주 위험 집단간 비교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아직까지 고위험음주군에 속하는 비율이 높은 응급실 내원 주취자에 관한 연구는 정구영 외(2010)의 연구가 유일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취자 집단 중에서도 고위험 음주 집단으로 추정되는 응급실 내원 주취자를 대상으로 음주 행태의 위험수준과 신체·정신건강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정신보건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이용욕구와의 상관관계를 통해 향후 응급실 내 정신보건서비스의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서울시정신보건센터가 주관한 본 설문은 중독 위험 없는 서울시 구현을 위한 '건강음주 희망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주취자들의

음주행태 위험수준, 신체·정신건강, 정신보건서비스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정신보건서비스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2012년 5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서울시 공공의료기관 응급실 내원 주취자 총 154명을 대상으로 응급실 내 의료진이 면접설문을 실시하였으며, 본 설문에 참여한 응급실 내원 주취자는 음주로 인한 신체적 손상을 받고 경찰에 의해 응급실로 이송된 대상자이다.

설문의 구성은 음주행태의 위험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AUDIT 축약형(4문항)과 신체 및 정신건강과 관련한 문항으로 알코올사용장애 진단, 술로 인한 신체 및 정신질환, 2주일 이상 우울 경험, 자살생각, 자살 시도 문항을 포함하였다. 이외에 정신보건서비스와 관련된 문항으로 정신보건서비스 인식, 이용 욕구 등으로 구성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윈도우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분석방법으로는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과 기술 분석(descriptive analysis),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주취자 일반적 특성

주취자 일반적 특성에 대한 내용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이 93.5%로 주취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취자의 연령은 50대가 60명(39.0%)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40대가 48명(31.2%), 60대 17명(11.0%)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주취자는 40~60대 중년층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응답한 주취자가 47명(31.3%)으로 제일 높게 나타났고, 중학교 졸업 44명(29.3%), 초등학교 졸업 27명(18.0%)순으로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86.6%의 주취자들이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학교 이하의 학력수준도 55.3%로 나타나 학력수준은 대체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혼인상태는 미혼이 85명(55.2%)로 가장 높게 나타나 50%가 넘는 주취자가 현재 미혼인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혼한 주취자도 36명(23.5%)으로 나타났다. 의료보장형태는 건강보험, 의료급여(1종, 2종) 혜택을 가지고 있는 주취자가 전체의 55.5%로 반 이상이 의료보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료보장을 받을 수 없는 일반, 노숙, 행려 주취자도 66명(44.6%)으로 나타났다. 가구유형은 현재 독립거주로 살아가고 있는 주취자가 86명(56.6%)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과 관련해서는 무직이 52명(35.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단순노무자 43명(29.1%), 기타 38명(25.7%) 순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과 관련해서는 현재 월평균 소득이 없다는 주취자가 78명(52.0%)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100만원 미만이 45명(30.0%), 100만원 이상이 11명(7.3%)로 89.3%에 해당하는 주

★ 표 1. 주취자 일반적 특성

변 수	구 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144	93.5
	여성	10	6.5
연령	20대	6	3.9
	30대	14	9.1
	40대	48	31.2
	50대	60	39.0
	60대	17	11.0
	70대	3	1.9
	80대 이상	6	3.9
학력	무학	12	8.0
	초등학교 졸업	27	18.0
	중학교 졸업	44	29.3
	고등학교 졸업	47	31.3
	전문대 졸업	2	1.3
	대학교 졸업	17	11.3
	대학원 졸업 이상	1	0.7
혼인상태	미혼	85	55.2
	기혼	14	9.1
	이혼	36	23.5
	별거	12	7.8
	사별	3	1.9
	기타	4	2.6
의료보장형태	건강보험	43	29.1
	의료급여1종	34	23.0
	의료급여2종	5	3.4
	일반	5	3.4
	노숙	19	12.8
	행려	42	28.4
가구유형	독립거주	86	56.6
	가족과 거주	16	10.5
	친척과 거주	2	1.3
	비혈연관계와거주	3	2.0
	거주시설	7	4.6
	기타	38	25.0
업종	관리자	2	1.4
	전문가 및 관련	2	1.4
	사무종사자	2	1.4
	서비스종사자	3	2.0
	판매종사자	2	1.4
	농림어업숙련	1	0.7
	기능원 및 관련	2	1.4
	장치 기계조작	1	0.7
	단순노무자	43	29.1
	기타	38	25.7
	무직	52	35.1
월평균 소득	없 음	78	52.0
	100만원미만	45	30.0
	100만원이상	11	7.3
	200만원이상	8	5.3
	400만원이상	2	1.3
	기타	6	4.0

*결측치는 사례수에서 제외함

취자들이 100만원 대의 월평균 소득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취자 일반적 특성을 종합해보면, 주취자 대부분은 40~60대에 이르는 중년층 계층에 해당하고, 미혼 및 이혼상태, 의료보장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지지적 체계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학력수준이 대체로 낮고, 무직 및 단순노무자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득이 없는 경우가 과반수 이상으로 경제적으로도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2. 주취자 음주행태 위험수준 및 신체·정신건강

1) 음주행태 위험수준과 신체·정신건강 특성

응급실 내원 주취자들의 음주행태 위험수준, 신체·정신건강 관련 특성은 아래 <표 2>와 같다. 음주행태의 위험수준 중 알코올사용장애 추정군에 해당하는 주취자 92명(69.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위험음주군도 27명(20.3%)으로 나타나 응급실 내원한 주취자 89.5%가 위험 및 알코올사용장애 추정군으로 나타났다.

알코올사용장애 진단과 관련해서는 주취자 중 37명(24.0%)이 알코올사용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주일 이상 기분이 우울한 적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60명(39.5%)이 우울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37명(24.5%)이 현재 자살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주취자 34명(22.8%)이 자살시도를 1회 이상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2. 주취자 음주행태 위험수준 및 신체·정신건강

변 수	구 분	빈도(명)	비율(%)
음주행태 위험수준	정상음주군	14	10.5
	위험음주군	27	20.3
	알코올사용장애 추정군	92	69.2
알코올사용장애 진단	예	37	24.0
	아니요	117	76.0
술로 인한 신체 및 정신질환 치료	예	15	35.2
	아니요	36	64.8
우울	예	60	39.5
	아니요	92	60.5
자살생각	예	37	24.5
	아니요	114	75.5
자살시도	예	34	22.8
	아니요	115	77.2

2) 음주행태 위험수준과 신체·정신건강 상관관계

주취자 음주행태 위험수준과 신체·정신건강간의 관계에 대한 상관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음주행태 위험수준은 신체 및 정신질

환과 정적 상관관계($r=.205$, $p<.05$)를 나타냈다. 이는 음주행태의 위험수준이 높아질수록 신체 및 정신질환을 가지는 것을 보여준다. 신체·정신건강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알코올사용장애 진단은 신체 및 정신질환($r=.563$, $p<.001$), 우울($r=.326$, $p<.001$), 자살생각($r=.212$, $p<.01$)과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신체 및 정신질환과 우울($r=.332$, $p<.001$), 자살생각($r=.217$, $p<.01$)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우울 또한 자살생각($r=.480$, $p<.001$)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신건강 변수들 간에는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가 성립하여 알코올사용장애 진단을 받을수록 신체 및 정신질환, 우울, 자살생각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정신건강 변수들 간에는 하나의 변수가 증가할수록 다른 변수도 증가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표 3. 음주행태 위험수준과 신체·정신건강 상관관계

	1	2	3	4	5
1. 음주행태 위험수준	1				
2. 알코올사용장애 진단	.105	1			
3. 신체 및 정신질환	.205*	.563***	1		
4. 우울	.106	.326***	.332***	1	
5. 자살생각	.093	.212**	.217**	.480***	1

* $p<.05$, ** $p<.01$, *** $p<.001$

3. 주취자들의 정신보건서비스 기관에 대한 인식과 이용욕구

1) 정신보건서비스 기관에 대한 인식과 이용욕구 특성

응급실 내원 주취자들의 정신보건서비스 기관에 대한 인식과 이용욕구에 대한 특성은 다음 <표 4>와 같다. 음주 및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치료기관이나 상담기관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취자 31명(21.2%)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115명(78.8%)는 모

★ 표 4. 정신보건서비스 기관에 대한 인식과 이용욕구

변수	구분	빈도(명)	비율(%)
정신보건서비스 기관 인식	예	31	21.2
	아니요	115	78.8
정신보건서비스 이용욕구	예	55	37.7
	아니요	91	62.3
정신보건서비스 거부 이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12	17.4
	그대로 두어도 괜찮거나 곧 나을 것 같아서	22	31.9
	도움을 받아도 나을 것 같지 않아서	6	8.7
	효과가 없다고 해서	1	1.4
	그냥 싫어서	12	17.4
	질환에 대한 무관심 무지 때문에	4	5.8
	다니다가 불편해서	1	1.4
	기타	11	15.9

르고 있다고 응답하여 주취자들의 치료기관이나 상담기관에 대한 인식수준은 낮다고 할 수 있다. 치료 및 상담 서비스를 권유한다면 이용할 욕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55명(37.7%)이 욕구가 있다고 응답하고, 91명(62.3%)이 이용욕구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결과적으로 주취자들의 정신보건서비스에 대한 이용욕구는 정신보건서비스 기관에 대한 인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으로 응급실 내원 주취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인식향상을 위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2) 정신보건서비스 기관 인식과 이용욕구 상관관계

주취자 정신보건서비스 기관 인식과 이용 욕구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주취자들의 정신보건서비스 기관 인식과 이용욕구는 정적인 상관관계($r=.326$, $p<.01$)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신보건서비스 기관에 대한 인식이 증가할수록 이용욕구도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 표 5. 정신보건서비스 기관 인식과 이용욕구 상관관계

	1	2
정신보건서비스 기관 인식	1	
정신보건서비스 이용 욕구	.326***	1

*** $p<.001$

3) 정신보건서비스 기관인식·이용욕구와 인구사회학적 변수 상관관계

주취자 정신보건서비스 기관 인식·이용욕구와 인구사회학적 변수간의 상관관계 분석은 다음 <표 6>과 같다. 기관에 대한 인식수준은 학력($r=.213$, $p<.05$), 건강보험·의료급여($r=.167$, $p<.05$)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력수준이 증가할수록 기관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하고, 의료보장 혜택 대상 주취

★ 표 6. 정신보건서비스 기관 인식·이용욕구와 인구사회학적 변수간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정신보건서비스 기관 인식	1							
정신보건서비스 이용욕구	.326***	1						
성별	-.063	.013	1					
연령	-.127	-.022	.003	1				
학력	.213*	.100	-.114	-.395***	1			
결혼 상태	.155	.144	-.008	-.155	.041	1		
가구유형	-.107	-.025	-.179*	.039	-.082	-.042	1	
의료보험	.167*	.015	.068	-.070	.055	.127	.016	1
월평균 소득	.088	-.044	-.002	-.206*	.335***	-.171*	-.174*	.036

* $p<.05$, ** $p<.01$, *** $p<.001$

자일수록 기관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용육구와 인구사회학적인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인구사회학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성별은 가구유형과 부적인 상관관계($r=-.179$, $p<.05$)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은 학력($r=-.395$, $p<.001$), 월평균 소득($r=-.206$, $p<.05$)과 부적인 상관관계, 학력은 소득수준과 정적인 상관관계($r=.335$, $p<.001$), 결혼 상태는 월평균 소득과 부적인 상관관계($r=-.171$, $p<.05$), 마지막으로 가구유형도 월평균 소득과 부적인 상관관계($r=-.174$, $p<.05$)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론

본 연구는 응급실 내원 주취자의 음주행태 위험수준 및 신체·정신건강, 정신보건서비스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주취자들의 위험음주 수준을 파악하고, 정신보건서비스 계획 수립과 효과적인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 공공의료기관 응급실 내원 주취자들을 대상으로 설문문을 실시하여 음주행태의 위험수준, 신체·정신건강, 정신보건서비스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응급실 내원 주취자 음주행태 위험수준을 살펴보면, 알코올사용장애 추정군에 해당하는 주취자 92명(69.2%), 위험음주군 27명(20.3%)으로 총 주취자의 89.5%가 음주 문제에 대한 개입이 불가피한 대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응급실 내 고위험군 비율이 높을 것이라는 추정과 동일한 결과이며, 응급실 내에서 조기선별과 중독관련 정신보건 서비스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음주행태 위험수준과 신체·정신건강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위험수준은 신체 및 정신질환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음주행태의 위험수준이 높아질수록 신체 및 정신질환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음주행태의 위험수준이 높은 주취자는 신체를 포함한 정신건강의 문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주취자 위험수준에 따른 정신건강 문제를 포괄하는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신보건서비스 기관 인식과 이용욕구를 살펴보면, 기관 인식과 이용욕구간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비스 기관에 대한 인식이 향상될수록 이용욕구 또한 높

아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향후 응급실 내원 주취자에게 지속적인 정신보건서비스 기관에 대한 정보제공이 필요하겠다.

이러한 본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가지는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대상자들은 음주로 인해 신체적 손상을 입은 주취자가 경찰에 의해 타의로 응급실에 내원한 경우로 적극적 설문응답이 어렵다는 점과 주취자 특성, 응급실 체계 특성을 감안하여 세분화된 척도로 문항을 구성하기 보다는 단답형 문항으로 변수들을 구성하였기에 본 연구를 통해 주취자 음주행태의 위험수준과 신체·정신건강, 정신보건서비스 이용 욕구에 대한 세분화된 연구를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대상은 서울시 내 공공의료기관 2곳 154명을 임의 표집하여 설문하였다는 점에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가지는 함의는 응급실 내원 주취자를 대상으로 음주행태 위험수준, 신체·정신건강, 정신보건서비스에 관한 연구가 후속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통해 응급실 내 주취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신보건서비스 개입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V. 참고문헌

1. 정구영·노현·정시영(2010). 음주관련 손상 환자에 대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질병관리본부.
2.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1). 2010 국민건강통계 국민건강영양조사 제5기 1차년도.
3. 최윤희·김기범·이동훈·어은경·정구영·김준식·신동운·김성은·이미지(2006). 외상환자에서 알코올 섭취가 손상의 중증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대한응급의학회지. 17(3):231-237.
4. Macdonald, S., Cherpitel, C. J., Borges, G., Desouza, A., Giesbrecht, N., & Stockwell, T.(2005). The criteria for causation of alcohol in violent injuries based on emergency room data from six countries. Addict Behav. 30(1):103-119.